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속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수업이 정인지체 아동의 표현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장 덕 영

음악수업이 정인지체 아동의 표현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 명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장 덕 영

인 준 서

장덕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정신지체 아동은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현이나 이해 면에 있어 언어문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한되게 할 수 있다. 음악적 자극은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상호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게 해주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외부세계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유지시키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수업이 정신지체 아동의 표현 및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수원에 위치한 통합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음악수업은 9주에 걸쳐 총 15차시 실시하였고, 한 차시는 30~40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중 관찰한 자료와 각 회기 마다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질적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결과분석은 아동들과의 친숙도를 고려하여 3차시부터 분석하였고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활동은 정신지체 아동의 언어, 신체 표현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악활동에서는 악기에 대한 관심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방법으로 악기모양을 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창활동에서는 노래 부르는 중간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가사에 맞춰 신체를 표현하거나 배경음악을 틀어주었을 때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활동은 정신지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악활동에서는 혼자 연주하는 모습에서 서로 악기를 전

달하거나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가창활동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을 때 노래 부르던 모습에서 다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고 끝맺는 모습과 서로가 말한 단어를 하나씩 가사에 넣어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신지체아동과 관련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음악수업지도안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실험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신지체아동에게 보다 많은 음악활동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해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선행연구 고찰	5
II. 이론적 배경	9
1. 정신지체	9
가. 정신지체의 정의 및 분류	9
나. 정신지체의 특징	12
2.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 교수-학습 방법	16
가. 장애아동을 위한 가창방법	16
나. 장애아동을 위한 기악방법	17
다. 정신지체 아동의 의사소통 향상과 사회성 기술향상을 위한 지도방법	19
III. 연구방법	23
1. 연구대상	23
2. 연구기간	23
3. 연구절차	24
4. 음악활동프로그램	25

가. 수업 프로그램	25
나. 음악활동 계획서	27
IV. 연구결과	29
V. 결론	5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지원의 강도에 따른 정신지체 분류	11
<표 2> 악기 분류	19
<표 3> 연구 대상	23
<표 4> 연구 절차	24
<표 5> 음악활동 프로그램	25
<표 6> 음악활동 계획서	27
<표 7> 질적 분석 기준	29

사 진 목 차

<사진 1> 두 손을 들고 인사노래 하는 모습	39
<사진 2>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	39
<사진 3> 노래가사에 맞춰 머리에 손을 얹는 모습	41
<사진 4> 가위 바위 보로 노래 빠르기 정하는 모습	41
<사진 5> 아동A의 기타 치는 모습	43
<사진 6> 아동B의 기타 치는 모습	43
<사진 7> 악보 짚어주는 모습	43
<사진 8> 핸드벨 소리 느끼는 모습	44
<사진 9> 모양 웨이커 전달하는 모습	51
<사진 10> 리듬합주 하는 모습	5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신지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크게 생물학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으로 분류되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아동들은 특정한 질병이나 두뇌손상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장애정도가 경한 정신지체 아동들은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¹⁾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지체가 발생하고 또한 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자립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다방면의 지원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적인 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정신지체인들이 자립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적절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5년 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별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이 2004년에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57.1%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59.8%, 2006년도 62.8%, 2007년도 65.2%, 2008년도에는 67.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특수학급도 최근 5년간 연평균 500여 학급씩 지속적으로 증설되어 왔다.²⁾ 이처럼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 늘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 한 것이다.

1) 윤점룡 외 12명, 「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육」, 서울시 마포: 학지사, 2005, 177쪽.

2) 박원희 외 14명, 「함께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특수교육학」, 경기: 교육과학사, 2010, 32쪽.

비장애인에 비해 정인지체 아동은 언어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질적 또는 환경적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비장애인과 같은 속도로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정인지체 아동의 표현이나 이해 면에 있어 언어문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에게 실패감을 안겨 주고 의사소통의 상대방에게도 좌절감을 안겨 주어 정인지체 아동에게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인지체 아동이 자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과 상호 작용해 보려는 동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³⁾ 또한 정인지체 학생들은 과제수행에 있어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데 이들은 잦은 실패로 인해 동기가 부족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기 쉬운 상황을 자꾸 회피하게 된다. 실패하는 상황이 자꾸만 늘어감에 따라 자기 성취 욕구가 줄어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⁴⁾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중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인지체인들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다가 갈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음악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거나,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깨닫고 느끼고 표현해 주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데, 이는 음악이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이라도 적절히 표현하도록 돕기 때문이다.⁵⁾ 음악의 자연스러운 환경 제공은 이러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음악적 자극은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상호

3) 강성미, “정인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래활동 사례분석”, 한국음악치료교육학술지:음악치료교육연구, 2004, 제1집 1호, 2쪽.

4) 진영기, 권주석, “음악 표현활동이 정인지체학생의 부적응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2006, 제10집 2호, 3쪽.

5) 최애나, 오은주, “음악치료가 경도정인지체아동의 감정어휘습득 및 감정표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2009, 제5집 2호, 2쪽.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게 해주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외부환경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유지시키도록 도와주며, 활동으로의 참여를 격려하며, 타인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⁶⁾ 정신지체인들의 목표 중의 하나인 자립을 위해서는 타인과의 교류가 우선이다. 음악적 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을 위한 반복적인 학습에서 오는 어려움과 지루함을 흥미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또한 음악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 할 수 있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학생들도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들에게 음악적 활동은 정서의 순화와 조화 있는 심미적 세계의 경험, 음악성 계발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문제, 지각의 문제, 과잉행동, 감각과 운동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회성 발달, 집단 소속감, 자신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⁷⁾ 또한 여러 유형의 음악활동들을 통해 자신감과 흥미를 주어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음악교육을 통해 그들의 잔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영역을 상승시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⁸⁾

정신지체 아동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고, 자신의 장애를 넘어 타인과의 사회교류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음악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악의 중요성은 정신지체아동들을 위한 지도방안 연구들(갈향임⁹⁾, 손수근¹⁰⁾, 이수연¹¹⁾, 최은혜¹²⁾)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6) 문지영, “음악적 자극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반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00, 제2집 1호, 2쪽.

7) 김희규 외 7명, 「특수교육 음악교육론」, 경기: 교육과학사, 2011, 87쪽.

8) 김희규(2011), 상계서. 109쪽.

9) 갈향임, “초등학교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음악수업 방안”,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 손수근, “인지 발달론에 근거한 정신지체 초등학생 음악 지각 · 표현활동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1) 이수연, “정신지체 학생의 음악개념 형성을 위한 기악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2) 최은혜, 정신지체 특수학교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한 학습지도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다양한 학습방법이 부족하고 실제 음악활동의 적용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인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기악과 가창 중심의 음악활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음악수업이 정인지체 아동의 언어, 신체 표현과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활동이 정인지체 아동의 언어, 신체표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활동이 정인지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선행연구 고찰

본 논문은 음악수업이 정인지체 아동의 표현 및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인지체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과 관련된 선행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수업 방안에 관련하여 갈향임¹³⁾은 발달장애아동에서의 음악개념은 인간적 성장을 개선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연구는 음악치료 쪽에 국한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발달장애아동 중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정인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폐나 정서, 행동장애 아동과 비교해서 기능 수준이 평준화 되어 있고 학습 수준을 예측 하는 것이 용이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학습 방안 연구에 치중되어 학습 과정안의 정식 틀을 갖추지 않은 지도안을 문제 삼고 정인지체 아동의 음악적 발달을 고려하여 다양한 음악활동과 풍부한 정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방안을 개발하고 음악수업의 과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손수근¹⁴⁾은 각 학생의 인지발달단계에 맞는 음악지도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음악학습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인지발달이론 중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 Bruner의 표상이론, 정보처리이론,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이론을 근거로 하여 정인지체 초등학교생의 인지발달 단계에 적합한 음악교육을 위한 음악 · 지각표현활동 지도 방안을 연구하고 정인지체 특수학교 ‘음악 I’ 교과서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인지체아를 위한 음악지도를 연구한 윤명노¹⁵⁾는 음악교육의 문헌수집과

13) 갈향임(2007), 전게서.

14) 손수근(2009), 전게서.

15) 윤명노, “정인지체아를 위한 음악지도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가창, 기악, 감상의 음악교육 방법과 수업지도의 예를 제시 하였고 최은혜¹⁶⁾는 특수학교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지각활동, 표현활동, 감상활동의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이론지도가 아닌 정인지체학생이 직접적인 체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구하였고 교사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음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음악개념 형성을 위한 지도안 연구로 이수연¹⁷⁾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긴 소리와 짧은 소리, 같은 소리와 다른 소리를 기악 중심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경험하게 함으로써 음악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며, 정인지체 학생들이 음악개념이 형성되어 음악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 방안을 구안하였다.

정인지체 학생의 기악수업과 가창수업에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최은경¹⁸⁾은 가창지도를 통하여 어휘 이해력과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가창지도 프로그램으로 쉬운 동요 11곡을 선정하여 목표어휘를 중심으로 개사하여 부르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요를 부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용어휘가 많이 습득되어 어휘력이 향상되었고 명사와 동사, 형용사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아 표현어휘력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하지현¹⁹⁾은 언어발달에 있어 어휘력은 정인지체 아동들이 사회라는 집단 속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임을 강조

16) 최은혜(2008), 전게서.

17) 이수연(2011), 전게서.

18) 최은경, “가창지도가 정인지체아동의 어휘이해력과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9) 하지현, “가창활동이 정인지체아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하면서 가창활동은 어휘력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기악활동을 통한 음악수업에서 김요한²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참여행동 및 주의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신지체 아동이 리듬악기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수업참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수업에 참여증가와 리듬악기연주를 위한 집중과 악기별 상호작용을 통해 주의집중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정신지체 아동의 표현발달과 사회성발달을 위한 연구에서 지신아²¹⁾는 소그룹 음악활동으로 눈 맞춤 행동과 자기결정하기 행동 그리고 함께 활동하기 행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유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문경은²²⁾은 노래 부르기와 Songwriting, 악기 연주, 즉흥 연주, 신체 활동의 집단 음악치료를 통해 언어적, 음성적, 행동적 자기 표현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각각의 선행논문을 살펴 본 결과 정신지체 관련 논문에는 발달단계에 맞는 음악지도안의 중요성과 문헌 수집을 통한 음악수업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창활동과 관련된 어휘력 향상과 기악활동에 관련된 집중력 향상에 관련된 논문은 많이 연구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신지체 학생의 지도안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표현력발달과 사회성발달을 위한 실험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활동을 실제로 적용하여 정신지체 아동의 표현

20) 김요한, “리듬악기활동이 정신지체 아동의 수업참여행동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1) 지신아, “소그룹 음악활동이 정신지체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2) 문경은, “소집단 음악치료 과정에서 관찰된 정신지체학생의 자기표현”,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정인지체의 정의, 특징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애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음악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인지체

가. 정인지체의 정의 및 분류

정인지체는 발달장애의 한 유형이며, 일반적으로 현재 기능 수준의 심각한 제한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지적발달의 지연으로 명백해진다. 즉 자신의 환경 내에서 부적절하거나 미성숙하게 행동을 하고, 학업, 심리, 신체, 언어, 사회적 영역에서 또래들과의 평균보다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제한성들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비슷한 연령, 즉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학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정인지체 학생들이 보이는 제반 행동의 제한성은 그들이 추상적 개념 및 문제해결에서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²³⁾

정인지체는 그 개념과 정의 자체가 복잡하고 시대의 철학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여러 학자와 단체들에 의하여 조금씩 다른 정의가 나타났다.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미국정인지체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23) 박원희외 14명(2010), 전게서, 161쪽.

Retardation: AAMR)의 정의인데 1983년 편람 8판에서는 정신지체의 IQ 상한선을 IQ 75까지로 하였으며, 1992년에는 기능적 모델에 기초한 9판의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최근에는 “지적기능과 개념적, 사회적, 실질적 적응기술에서 상당한 제한이 나타나는 장애이며, 이는 18세기 이전에 시작된다.”고 정의하였다. 개념적 지능(conceptual intelligence)은 주로 IQ test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과 사회적 지능(social intelligence)은 적응 기술 측면의 기초가 된다. 실질적 지능은 매일의 일상적인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사회적 지능은 사회적 기대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 생활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필수적인 가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기능상의 제한은 반드시 개인의 또래 연령집단과 개인이 속한 문화적 배경을 포함한 지역사회 환경의 맥락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타당한 평가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뿐 아니라 의사소통, 감각, 운동, 행동 상의 차이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이 지닌 제한점은 흔히 강점과 함께 나타난다.

넷째, 개인이 지닌 제한점을 묘사하는 목적은 필요한 지원의 프로파일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적절한 개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정신지체인의 삶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²⁴⁾

미국정신지체협회의 ‘2002년 정의체계’는 필요한 지원의 정도에 따라 정신지체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개념적이고 과정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

24) 김윤옥의 9명, 「특수아동 교육의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2005, 77, 81쪽. 재인용.

한 접근은 개인의 지적결함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이 실제로 생활하는 환경(즉 학교, 가정, 지역사회, 직업)에서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의 강도에 따라서 분류하려는 새로운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표 1>과 같이 네 가지 수준으로 분류된다.²⁵⁾

<표 1> 지원의 강도에 따른 정신지체 분류

분 류	지원의 강도
간헐적 지원	‘필요한 때’에 기초한 지원, 일회적 성격을 띠며, 항상 지원을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인생의 전환기(예: 실직이나 심각한 건강상의 위기상황)에 단기간의 지원이 필요, 간헐적 지원은 고강도 혹은 저강도로 제공된다.
제한적 지원	일정한 시간 동안 일관성 있게 지원이 필요하고, 시간제한적인 성격을 띠며, 집중적인 지원보다는 지원인력이 덜 필요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예: 시간제한적인 직업훈련 또는 학교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의 지원).
확장적 지원	적어도 일부 환경에서(일터나 가정) 정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 제한적이지 않다.(장기간의 가정생활 지원).
전반적 지원	항구적이고 고강도의 지원으로, 전반적인 모든 환경에서 제공되며, 삶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반적 지원은 확장적 혹은 시간 제한적 지원보다 더 많은 인력과 개입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지체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9)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6개 급으로 나누고 있으면서 정신지체인을 지능수준과 생활능력에 따라 1,2,3급으로 나누었다. 1급은 34 이하의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은 지능지수 35 이상 49 이하의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을 요구하

25) 김진호 외 6명, 「최신 특수교육」, 서울: (주)시그마프레스, 2009, 108~109쪽.

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은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의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²⁶⁾

나. 정신지체의 특징

정신지체아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히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적 요구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먼저 정신지체아들의 중요한 일반적 사항들을 이해하자면 그들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본 생리적,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지적, 학습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심리 운동적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동 특성이나 요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화된 행동특성을 알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아 주변의 교육여건 변화 때문에 이들 집단과 연관된 전통적 특성들을 계속 추적하여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지체아 특성의 이해는 어디까지나 개인차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본질적인 지적 결함과 이에 따라 파생된 2차적 장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그들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정신지체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우호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에 대한 비상한 감수성과 지적활동이나 수지 훈련 등에 대한 반응이 낮다. 짧은 주의 집중시간과 언어의 제약성, 계획성의 결여와 상상력의 한계, 선악의 구별이 어렵고 정서안정이 안되고 강한 고집성이 나타난다.²⁷⁾

정신지체는 연령에 따른 지적 능력과 적응행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한성이

26)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편, 「특수아동교육의 이해」, 경기도 파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0. 256쪽.

27) 김영옥의 7명, 「특수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2005, 166~167쪽.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떤 제한된 시간동안에 나타나는 장애가 아니다. 비록 많은 정인지체인들이 적응행동기술에 있어서 많은 진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생에 걸쳐 그 영향을 받는다. 정인지체아동의 인지 기능과 적응행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²⁸⁾

1) 인지기능

“인지적 기능과 학습특성에서 보이는 결함은 주로 빈약한 기억, 느린 학습 속도, 주의집중 문제, 일반화 문제, 동기의 부족 등이다.”

가) 기억

정인지체아동은 정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결함이 심할수록 기억의 결함도 심하게 된다. 연구들은 정인지체아동이 특별히 단기기억에서 정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 학습속도

정인지체아동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속도는 일반아동들보다 매우 낮다. 학습속도를 측정하는 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학습기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학습시행 횟수인데, 이것은 정인지체아동이 조력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 학습과제에 정확하게 반응하게 되기까지 걸린 연습의 수나 학습시행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두 가지 형태의 도형을 구별하는

28) 김진호의 6명(2009), 전계서, 113~116쪽.

과제에 대하여 일반아동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두세 번 정도의 시행을 하면 습득할 수 있다면, 정인지체아동은 그러한 과제를 습득하는데 20번 또는 30번의 학습시행이 필요 할 수 있다.

다) 주의집중

과제의 중요부분에 주의집중을 하는 능력은 효율적인 학습자의 특성이다. 정인지체아동은 흔히 학습과제의 중요한 특성에 주의를 집중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부적절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인지체아동은 학습과제에 지속적으로 주의집중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주의집중의 어려움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기억하고, 일반화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라) 학습의 일반화

장애 아동 중에서 특히 정인지체아동은 새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받은 장소나 상황이 아닌 다른 장소나 환경에서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일반아동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학습의 일반화나 전이가 정인지체아동에게는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많다.

마) 동기

정인지체아동 중에는 학습과 문제해결 과제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아동들이

있다. 얼마간의 정인지체아동은 학습된 무기력을 보이는데, 이것은 학습의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한 아동이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다른 과제에서도 실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낮은 동기는 정인지체의 선천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계속적인 실패의 결과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대신 과제를 해줌으로써 생기는 조력의 의존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근래에 들어와 정인지체아동의 자기결정 기술을 강조하는 것은 정인지체아동들로 하여금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자신을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문제해결자로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적응행동

“정인지체아동은 실제적인 적응행동상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적응행동상의 제한성은 신변처리기술이나 사회적 관계, 그리고 행동영역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정인지체아동은 일반적으로 의복과 섭식, 개인 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신변처리기술(자조기술)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기술의 결함이 아동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교수나 환경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에서 정인지체아동은 제한적 인지기술과 빈약한 언어 발달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그들 대부분 친구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 행동영역에서는 정인지체아동이 일반아동들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 비판의 수용이나 자기통제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공격 행동이나 자해 행동과 같은

부적절한 문제행동을 하는 것은 정인지체아동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인지체의 정도가 심할수록 문제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2.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 교수-학습 방법

가. 장애아동을 위한 가창방법

장애학생에게 가창교육은 안정과 함께 아름다운 심미감을 기르는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특히 가창활동은 장애정도나 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참여할 수 있고, 인지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며,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특성을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때 고함지르듯이 하거나 발음이 불분명한 소리를 내기 쉬우며, 정확한 음정의 표현이 어렵고, 높은 음과 낮은 음의 표현과 빠른 노래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중증 장애학생들은 주의 집중이 짧고 발성에 어려움을 보이며 학습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장애학생을 위한 가창교육은 먼저 학생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학생의 장애특성과 수준을 이해할 때 적절한 목표와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 음악은 소리를 즐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활동을 통하여 종속변인인 음악적 이해, 태도, 정서적 안정, 심미감 등을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음악적으로 특수한 능력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창수업의 주요활동으로는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부르기, 듣고 부르기, 보고 부르기,

동요 부르기, 전래동요와 민요 부르기 등이 있다.²⁹⁾

곡 선택에 있어서도 단순한 단어, 반복적인 구조, 쉬운 멜로디, 장애아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그림, 사진 등의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공적인 노래 부르기를 위해서는 실제 나이와 발달 연령을 고려하여 수준에 적절한 노래를 선택한다.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노래 부를 때 박수를 친다. 익숙한 노래에 단어를 모방하고 채워 넣어 부르는 활동을 사용한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는 장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 좋아하는 것, 자기신체 등의 개념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래는 춤이나 동작과 연결하여 적용하면 효과적인데 처음에는 박수치기, 발 구르기 등 단순한 동작부터 시작하여 점점 복잡한 동작을 사용한다 등의 고려사항이 있다.³⁰⁾

정신지체 음악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선행논문에서 사용된 제재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개껍질 묶어’, ‘여행자’, ‘산도깨비’, ‘리 차로 끝나는 말은’, ‘내게 소중한 것들’, ‘개구리’, ‘겨울바람’, ‘작은 별’, ‘잠자리’, ‘비행기’, ‘오! 필승 코리아’, ‘고기잡이’, ‘돌과 물’, ‘뚝뚝뚝’, ‘내가 만약’, ‘악어 떼’, ‘우리나라 꽃’, ‘새싹들이다’, ‘초록바다’, ‘우리산 우리강’, ‘숲속을 걸어요’, ‘노래하자 춤추자’, 등으로 단순한 멜로디와 쉬운 가사의 곡들이 많다.

나. 장애아동을 위한 기악방법

기악활동은 장애학생이 좋아하는 음악활동으로 특히 악기를 흔들거나 두드려서 자유롭게 소리를 내는 활동은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29) 김희규 외 7명(2011), 전게서, 178, 193쪽.

30) 장혜성 외3명, 「장애아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 마포: 교육과학사, 2007, 38쪽.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드는 활동에서부터 복잡한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음악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은 개인차와 개인 내차가 심하고, 악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며, 복잡한 리듬을 잘 연주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들을 위한 기악교육은 소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소리에 관심을 보이고 흥미를 느낄 때 단순하고 좋아하는 활동부터 점차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구별하며, 악기를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소리를 만드는 활동은 기악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악기의 주법을 익히고 자신의 소리를 만들며 다른 사람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악기연주의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소리를 탐색하고 음악개념을 익혀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악활동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운동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애학생을 위한 기악활동은 교육의 목적 이외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기악수업의 주요활동으로는 악기 연주하기,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리듬악기와 가락악기 연주하기, 합주하기 등이 있다.³¹⁾

성공적인 악기연주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리가 좋고 튼튼하며 위험하지 않은 악기를 사용한다. 어떤 악기든 사용 전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악기를 재조정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악기만을 제시하여 혼란스러움을 없애고 정확하게 이름을 알려주고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 악기를 선택하거나 연주할 때 충분한 탐색시간을 주고 반응을 기다린다. 기존의 연주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연주하더라도 창조적으로 연주하는 것을 격려한다.³²⁾

음악활동에서 많은 악기들이 사용되지만 장애아의 기능과 수준 등을 고려하

31) 김희규 외 7명(2011), 전게서, 208, 219쪽.

32) 장혜성 외 3명(2007), 전게서, 40쪽.

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로 사용되는 악기는 <표 2>와 같다.³³⁾

<표 2> 악기 분류

분류	악기이름
멜로디 악기	<u>피아노</u> , <u>기타</u> , <u>실로폰</u> , 마림바, 비브라폰, 슬라이드 휘슬, <u>핸드벨</u> , <u>칼라벨</u> , 플루토폰,
리듬악기	큰북, 작은북, 팀파니, <u>탬버린</u> , 차임벨, 봉고, 톰툼, 클래퍼 드럼, 콩가, 귀로, 카바사, <u>마라카스</u> , <u>우드블록</u> , 트라이앵글, <u>코끼리코</u> , 징글스틱, 플랙사톤, 비브라슬랩, 토킵드럼, 카우벨, 윈드차임, 심벌즈, 캐스터네츠, 클라베스, 손가락 피아노, 레인스틱, 나무라켓, 스틸드럼, <u>오션드럼</u> , 징글벨, <u>핸드드럼</u> , 로그드럼, 카주, 톤차임, <u>에그셰이커</u> , 아고고벨, 아자찌, 슬라이벨, <u>리듬스틱</u>

밑줄 표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악기를 표시한 것이다.

다. 정신지체 아동의 의사소통 향상과 사회성 기술향상을 위한 지도 방법

1)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지도 방법

정신지체아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언어지체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언어 발달 지연, 조음장애, 구어발달 지연, 어휘의 제한적 사용, 문장구성능력의 어려움이 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절하게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용언어 또는 이해언어가 필요하다. 아동은 일반적으로 표현 언어 이전에 또는 표현 언어 발달과 동시에 수용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기초적인 수준의 수용언어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음악활동으로는 활동 속에서 아동이 인도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즉 ‘복을 3번 쳐 보자!’라

33) 김종인, 「음악치료 악기론」, 서울: (주)지식산업사, 2005, 26~47쪽.

는 언어적 지시에 따라 아동이 북을 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타악기를 아동에게 제시한 다음 타악기를 치도록 하거나 색깔악보나 색깔 관련 노래의 가사 속에 나오는 색깔과 자신이 갖고 있던 악기의 색깔이 일치할 때 마다 연주하도록 할 수 있다. 표현 언어 향상을 위해 아동은 악기리듬패턴을 따라 하도록 하고 특정한 소리를 그대로 모방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박자나 리듬패턴을 만들어 이름을 부르거나 단어를 말할 수도 있다. 음악은 다감각 자극매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용언어를 위해 활동을 하더라도 표현 언어나 그 외의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예시 활동들을 살펴보면 지시사항이 포함된 노래를 부르고 따라 하기, 학습된 내용을 연습할 수 있는 음악적 환경 마련하기. 시선접촉시간 연장을 위해 움직이는 대상을 눈으로 따라가고 악보 읽기. 악기연주는 시선접촉능력이 형성된 뒤에 사용하기. 발성 훈련을 위해 동물 소리와 주위 환경 소리를 노래 부르기. 호흡조절능력 향상을 위해 관악기 불거나 풍선 불기 게임하기. 악기를 통한 자기감정 표현하기. 악기연주를 통해 즉흥적인 대화하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예시 활동을 참고하여 음악활동을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제시한 행동을 신체나 악기를 사용하여 모방하기, 노래 부르면서 자유롭게 표현하기, 제시하는 부분에 자기 생각 넣어 부르기, 몸으로 피아노 치기, 악보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에 맞춰 리듬연주하기, 가사악보 보고 노래 부르기, 배경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악기연주하기 활동을 하였다.

2)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 방법

정신지체아동의 인지 및 언어 사용의 결함은 자존감 상실과 사회적 기술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음악활동은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준다.

이를 위해 음악활동 속에서 아동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류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을 그룹 안에서 악기연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동이 직접 만든 단순한 리듬이나 멜로디를 다른 구성원들이 모방하도록 할 수 있다. 동작, 노래, 리듬적 활동을 포함한 체계적으로 구성된 음악활동은 쉽게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 협동하는 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구조와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아동은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서 역할인식, 차례인식, 타인인식, 대인관계기술, 협동의식 등을 배운다. 또한 교사의 지휘에 따라 집단으로 리듬악기합주를 하거나 악보를 보면서 합창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재창조연주활동 외에도 즉흥연주를 통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즐거움 자체가 강력한 강화제로서 아동의 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예시활동들을 살펴보면 동작 표현, 집단 작곡, 음악 감상, 감상 토론 등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악기연주를 통해 현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악보나 교사의 지휘에 따라 리듬합주하기. 사회성향상을 위해 노래 듣고 노래 제목 알아맞히기, 합창하기, 함께 춤추기. 배경음악 속에서 교사나 친구의 움직임 흉내 내기가 있다.³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참고로 하여 가사악보를 보면서 다함께 노래 부르기, 교사지시에 맞춰 리듬합주하기, 악보를 보고 신체리듬 연주하기, 교사나 친구의 행동 모방하기, 핸드벨과 실로폰 연주하기, 모양 셰이커 전달하기, 배경음악 들으면서 자신이 색칠한 나뭇잎으로 함께 나무 완성하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34) 김종인, 「아동음악치료방법론」,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181~4쪽.

정신지체 아동의 표현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장애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 특징을 고려하여 음악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수업 진행은 단계별로 접근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는 세 명의 아동 모두 음악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원에 위치한 통합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지적장애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도 있었다. 대상 선정은 담당 교사의 추천을 받았고, 선정된 학생의 인적사항은 관련 자료와 담당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하며 학생의 행동 특성은 담당교사의 설명과 자료 및 관찰을 기초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실태는 <표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

대상	성별	연령	장애유형
A아동	남	11세	지적장애
B아동	남	11세	지적장애
C아동	남	10세	뇌병변, 지적장애

2. 연구 기간

음악수업은 2012년 9월 ~ 2012년 10월까지 9주에 걸쳐 총 15차시 실시하였고, 한 차시는 30~40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기악과 가창수업을 통한 정인지체아동의 언어, 신체표현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음악활동이 정인지체 아동의 표현발달과 사회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먼저 정인지체 아동의 수업이 가능한 장소를 섭외 하여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다음 정인지체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배경 지식을 습득 하고, 담당교사와의 상담과 사전 관찰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 지도안의 틀을 작성하였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진단평가를 위한 수업을 진행하여 대상자들의 행동을 파악하였다. 진단평가를 통해 파악한 대상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지도안을 분석 및 수정한 뒤 음악활동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활동 중 관찰한 자료와 각 회기마다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질적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결과는 아동들과의 친숙도를 고려하여 3차시부터 분석하였다. 연구절차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절차

기간	내용
2012. 06 ~ 2012. 06	연구 장소섭외 및 대상자 선정
2012. 07 ~ 2012. 07	대상자 연구 및 담임교사 상담
2012. 08 ~ 2012. 08	대상 관찰 및 연구 지도안 작성
2012.08.30	진단평가 수업
2012.08 ~ 2012.09	지도안 수정
2012.09 ~ 2012.10	음악수업 (총15회)
2012.10 ~ 2012.11	음악수업 분석 및 논의

4. 음악활동 프로그램

가. 수업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기악과 가창을 중심으로 15회기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에는 고기잡이, 조개껍질 묶어, 내가 어른이 되면, 도도도도 무릎입니다, 여행을 갈까요, 물과 돌, 가을 길, 잠보, 가을 스케치, 노을 곡을 사용하여 가창활동을 준비하였고 가창활동에서 부른 노래와 비행기, 작은 별, 풍당풍당, 라데츠키 행진곡을 사용하여 기악활동을 준비했다. 기악활동에 필요한 악기 외에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는데 아동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큰 가사나 악보를 만들었고 피아노 건반을 만들어 수업에 활용 하였다. 또한 매 회기 수업에서는 기존 멜로디에 가사를 넣어 만든 인사노래를 사용하여 수업의 시작과 끝에 사용 하였다 (<표 5>참조).

<표 5> 음악활동 프로그램

차시	활동명	제재곡	음악활동
1	노래 부르며 악기 연주하기	고기잡이 조개껍질 묶어	음악에 맞춰 오션드럼과 마라카스, 웨이커를 연주하고 노래 부르기
2	동작, 악기 모방하기	고기잡이 조개껍질 묶어	제시한 행동을 리듬스틱과 행동으로 모방하기
3	가사 writing	내가 어른이되면, 도도도도 무릎입니다.	들려주는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제시하는 부분에 가사를 넣어 부르기
4	몸으로	비행기	악보를 보고 바닥에 만들어진 피아노 건반을 몸으로 치

차시	활동명	제재곡	음악활동
	피아노 치기	작은별	면서 음악을 표현한다.
5	노래 부르면서 리듬치기	비행기 작은별	악보에 스티커를 붙이고 노래 부르면서 스티커 붙인 부분에 제시한 행동 하기
6	핸드벨 연주	비행기	숫자악보를 보고 자신의 숫자부분에 악기를 연주한다.
7	가사 writing	여행을 갈까요	노래를 부르면서 제시하는 부분에 자기생각 넣어 부르기
8	노래 부르기	물과 돌	멜로디 듣고 노래 부르기
9	노래 부르기	가을길	가사악보를 보고 노래 부르기
10	노래 부르기	잠보	아프리카 인사말 배우고 노래 부르기
11	노래 부르기	가을 스케치	가사악보를 보면서 노래 부르기
12	실로폰 연주	작은별	숫자악보를 보면서 실로폰 연주하기
13	노래 부르기	노을	노래 부르면서 색칠한 나뭇잎으로 나무 완성하기
14	셰이커 윽기기	풍당풍당	박자에 맞춰 셰이커 전달하기
15	리듬합주	라데츠키 행진곡	배경음악에 맞춰 코끼리코, 우드블럭, 과일셰이커, 패들 드럼을 연주하기

나. 음악활동 계획서

<표 6>은 1차시에 사용한 음악활동 계획서이다. 노래 부르면서 악기 연주하는 활동으로 ‘조개껍질 묶어’를 가사를 바꿔 부르고 ‘고기잡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션드럼과 마라카스, 모양 셰이커를 사용하였다. 먼저 여름을 주제로 대화하면서 아동들의 생각을 들었고 아동이 표현할 수 있도록 박자를 맞춰 가면서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응용부분을 항상 준비하였다.

<표 6> 음악활동 계획서

도구		시간	관찰영역
오션드럼, 모양 셰이커, 피아노, 마라카스		40분	사회성, 음악적표현
제목	여름 노래 부르면서 악기 연주하기		
제작곡	고기잡이, 조개껍질 묶어		
활동목표	1. 여름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고 관련된 노래 부른다 2. 음악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부른다		
단계	활동방법		
도입	인사노래를 부르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전개	1. 아동들과 함께 여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2. ‘조개껍질 묶어’, ‘고기잡이’를 들려준다. 3. 한 소절씩 불러주면 듣고 따라 부른다. 4. 빠르기와 강약을 바꿔가면서 노래 부른다. 5.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부른다. 6. 오션드럼과 모양 셰이커를 보여주고 살펴보게 한다. 7. 앞서 배운 노래에 자유롭게 연주한다. 8. 악기를 서로 바꿔서 연주한다.		

	9. 한 명씩 두곡 중 좋아하는 곡을 부르면서 악기 연주한다.
정리	인사노래를 부르면서 수업을 마친다.
<p>♪ 응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래와 악기연주가 동시에 안 될 경우 악기연주 할 때는 노래 부르지 않고 피아노반주와 선생님 노래에 맞춰 악기만 연주를 한다. 2. 수업에서 부른 노래 외에 여름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노래를 불러 보게 한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기악과 가창중심 음악활동에 참여한 아동의 표현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 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2개의 범주아래 4개의 주제로 정리 되었다(<표7> 참조).

매 시간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수업 시작하면서 인사노래를 함께 불렀고 수업이 끝나기 전 인사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 하였다. 인사노래를 할 때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거나 눈 마주침, 손뼉 치기 등의 신체움직임을 통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표 7> 질적 분석 기준

범주	주제
표현성	언어적 표현
	신체적 표현
사회성	상호작용
	질서, 규칙

1. 표현성

본 연구에서는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수업을 통해 정인지체 아동의 언어적 표현, 신체적 표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 언어적 표현

아동은 음악활동을 하며 언어적으로 다양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욕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악활동을 시작하기 전 아동들은 쑥스러운 듯이 ‘안녕’하는 부분에서 작은 소리로 대답하거나 교사의 노래만 듣고 있었다. 수업이 진행 될수록 아동들은 멜로디가 익숙해져 박자에 맞춰 노래도 부르고 인사말도 길어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 명의 아동은 음악활동이 시작하기 전 인사노래를 부르면서 수업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인사노래는 익숙한 멜로디에 반복적인 가사를 넣고 아동의 이름을 넣어 부를 수 있게 작곡했다. 첫 시간 인사노래를 부를 때 아동A의 경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동B와 아동C의 경우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매 회기 반복적으로 인사노래를 부르면서 아동A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안녕’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외치기도 했다. 아동B는 처음 짧은 인사말로 대답하다가 매 회기 반복한 뒤에는 노래가사를 전부 기억하고 선생님과 함께 노래 부르거나 전주할 때부터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C의 경우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짧은 인사말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강남스타일! 이라든지 기타 반주할 때 제가 할래요!라고 말 하면서 의사를 표현하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인사노래 부르면서 보여지는 모습

아동A

선생님이 아동 한 명씩 이름을 넣어 부를 때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1회) / 매 회기마다 인사 노래를 부르고 나서 안녕~ 하면서 인사도 하고 기타반주에 인사 노래 부를 때 본인 차례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앞으로 나온다(7회)

아동B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아동B 안녕 노래를 부르면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한다 (2회)
/ 몇 회가 지나고 반주에 맞춰 선생님과 함께 인사노래를 부른다(5회) /선생님이
누가 아직 인사 안 했지? 아동은 옆에 친구 이름을 외친다 (7회) / 인사노래 부르기
전 반주할 때부터 멜로디를 흥얼거린다(12회)

아동C

아동 중 가장 적극성 있게 수업에 참여 했다 선생님이 아동C의 이름을 넣어볼까?
네!하고 대답한다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아동C안녕 하면 안녕! (1회) / 학교에
서 어떻게 인사해 요? 아동C는 사인하면서 애요라고 대답한다 (5회) / 선생님이
오늘 재미있게 인사해 볼까? 하면 아동은 강남스타일! 이라고 말한다(6회) / 기타
반주로 인사 노래 부를 때 제가 쳐 볼래요 라고 한다 (7회)

다음은 자신의 생각을 넣어 노래 부르는 가창활동의 모습이다. 먼저 ‘내가 어른이 되면’ 노래에서는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다. 아동A는 표현 하지 못하여 친구들이 얘기해 주거나 선생님이 제시하는 단어를 넣어 노래를 불렀다. 다른 두 명의 아동은 ‘축구선수’, ‘우주비행사’, ‘경찰 헬리콥터’, ‘후쿠선장’ 등 자신이 되고 싶은 꿈을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C는 선생님의 꿈도 물어보면서 자신의 생각인 ‘결혼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명 씩 피아노 옆으로 불렀을 때 적극적인 모습으로 더 정확한 가사와 멜로디로 노래를 불렀다.

‘여행을 갈까요’ 노래는 선생님이 질문하고 아동이 대답하면 바로 가사를 바꿔 노래를 불렀다. 가고 싶은 곳, 타고 갈 것,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갈 것 등을 차례로 이어 가며 질문을 하였고 아동은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넣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노래에 맞춰 자신이 생각하는 단어를 말하고 노래를 듣다가 단어만 바꾸면서 멜로디를 반복적으로 한 후에는 가사의 완성된 문장으로 노래

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때 아동들은 말로 질문을 하는 것 보다 멜로디를 넣어 질문했을 때 서로서로 대답하려고 하였고 신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3회)

선생님 : 되고 싶은 꿈을 이야기 해 볼까요?

아동B : 경찰 엘리베이터, 소방관,

아동C : 축구선수, 우주비행사, 군인

(중략)

아동들 : ♪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7회)

선생님 : 어디로 여행을 갈까요?

아동B : 사당, 서울

다같이 : ♪ 사당에 갈까요~ 사당에 갈까요~

선생님 : 무엇 타고 갈까요?

아동C : 버스, 전철이요

선생님 : ♪ 버스타고가지요~ 버스전철타고가지요

다같이 : ♪ 버스전철 타고가지요

(중략)

선생님 : 이번엔 동물원에 가 볼 거예요. ♪ 동물원엔 뭐가 있을까 동물원엔 뭐가 있을까

아이들 : 기린, 사자, 오리, 코끼리.....

다음은 배경음악을 활용해 노래 부르는 모습이다. 이 때 사용 된 곡은 ‘물과 돌’, ‘가을 길’, ‘잠보’, ‘가을 스케치’, ‘노을’ 이다. 수업에 활용 한 곡들은 반복적인 멜로디와 가사, 신나는 리듬 그리고 아동이 노래 부르면서 상상할 수 있

는 노랫말이 들어간 곡들로 선정을 하였다. ‘돌과 물’ 노래는 후렴구인 ‘라라라라’를 먼저 들려주어 아동이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불러주었다. 개별 지도가 필요한 아동A는 앞으로 불러 음정 하나하나 짚어 주고 부르게 도와주었고 그 후에 작은 소리이지만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라’와 같은 음절의 반복적인 가사의 사용은 세 명 모두 자신 있게 가사를 표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동B는 가사에 있는 돌맹이를 반복적으로 넣어 부르면서 즐거워하였다.

제재곡 ‘가을’ 에서도 ‘트랄라라라라 노래 부르며’를 먼저 부르게 하여 노래를 익히게 하였다. 가을 길에 나오는 나무의 색깔을 물어 보았을 때 아동C는 ‘초록색은 소리나는데 음~~’ 하면서 얘기했고 마지막 가사 ‘가을 길은 고운 길’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사를 넣었을 때 아동B는 ‘멋쟁이’ 라고 말했다. 아동A는 틀어준 음악에 전주부분의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들 모두 전 시간보다 금방 멜로디를 따라 불렀고 아동A도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가사악보에 집중하면서 가사를 혼자 읽기도 했다. 아동들이 원하는 빠르기와 강약으로 부르게 이끌었을 때 아동은 더 적극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8회)

선생님 : 먼저 ‘물과 돌’ 의 후렴구 라라라라라라라라 를 들려준다.

다같이 : 라라라 를 따라 부른다.

아동B : 돌덩이를 계속 넣어 부르면서 좋아한다

다같이 : ♪ 라라라라라라라 가장 크게 부른다

아동B : ♪ 바윗돌 깨뜨려 돌맹이 돌덩이 깨뜨려 돌맹이 (웃으면서) 돌맹이를 반복해서 넣는다

(9회)

선생님 : 나무 색깔은 무슨 색깔까요?

아동C : 초록색은 소리 나는데 음~~소리나요

(중략)

선생님 : ♪ 가을 길은 고운길, 가을 길은 무슨 길로 바꿔볼까?

아동B : ♪ 가을 길은 멧쟁이

(중략)

아동A : 흘러나오는 전주 부분의 멜로디를 반복적으로 부른다. 가사악보에 집중하여 가사를 읽는다

아프리카 민요 ‘잠보’는 짧은 형식의 인사노래이고 큰 악보를 사용하여 아동들이 한 번에 읽을 수 있게 제작하였다. 처음 가사를 읽을 때 더듬더듬 읽었지만 새로운 언어에 대한 호기심에 스스로 읽어 보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볼 수 있었고 한국말로 해석하여 가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한 아동은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한국말로 부르자고 제시했지만 아프리카말로 계속 불렀고 표현이 많이 없던 아동A도 하나하나 불러주었을 때 악보를 보면서 마지막 ‘하쿠나마타타’를 반복적으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을 스케치’와 ‘노을’을 부를 때 화려한 전주에 아동들은 집중하였고 흘러나오는 노랫말에 자연스럽게 자신도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A는 ‘노을’ 전주에 나오는 멜로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아기공룡둘리’와 비슷하다고 표현하였다. 가사는 쉽게 볼 수 있게 크게 적어 보여 주었고 가사 중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10회)

선생님 : 아프리카 노래 부를 거예요

아동A : 유럽, 아시아 자신이 알고 있는 나라이름을 말한다

아동C : 아프리카를 판단단단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 한다

(종락)

아동B : ♪잠보 잠보브와나 아바니가니 무주리사나, 재밌어 하면서 노래를 끝까지 반복해서 부른다

아동A : 마지막 가사 아쿠나마타타를 자신있게 부른다

(13회)

아동A : 노을의 전주가 흘러나오자 아가공룡돌리와 같다고 말한다

다음은 노래 부르면서 몸으로 피아노 치는 활동이다. 이때 큰 피아노 건반 모양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리듬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흥미를 갖게 하고 집중 시킬 수 있었다.

‘도도도도 무릎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노래 속 계이름을 통해 신체와 연결 시켜 더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익히고 부를 수 있었다. 언어표현이 서툰 아동A가 가사에 제시 되어 있는 신체를 가리키면서 정확한 음정과 가사로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동C는 ‘유후’ 하면서 즐거움을 표현하고 아동B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몸으로 피아노 치는 활동에서 아동들은 전 시간에 배운 노래에 숫자를 부르면서 순서를 익혔다. 선생님이 ‘도도도도’를 노래하면 아동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를 한다. 반복적인 연습 후에 한 아동은 피아노 건반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지 않아도 반주에 맞춰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동C는 자신의 차례에 밀에 있는 건반 모양이 조금 움직이자 ‘어떻게’ 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동들은 같은 노래지만 시각적인 자료가 주어졌을 때 높은 집중력을 보여 주었고 가사 표현의 정확성도 높았다.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는 활동 중에는

선생님이 한 번 더 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한 아동은 ‘백번해요’라고 말하면서 즐거움을 표현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동작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동A

선생님이 ♪ 도도도도 어디일까요? 하면서 질문하면 무릎입니다. 배꼽입니다 대답한다 (3회) / 전 시간에 배운 노래에 숫자를 넣어 도도도도 1번입니다를 따라한다 (4회) / 비행기 노래를 더듬더듬 따라 부른다 (5회)

아동B

선생님이 강약을 사용해 노래 부를 때 ‘작게하고 크게해요’ 라고 말한다 (3회) / 선생님의 ♪ 도도도도에 맞춰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차례로 노래 부르면서 대답한다(4회) / 악보에 나와 있는 스티커 부분에 동작을 하면서 노래를 끝까지 부르면서 한다(5회)

아동C

♪ 도도도도 무릎입니다 부르고 난 뒤 ‘우후!’ 하고 좋아한다(중략) 자신이 가사에 넣고 싶은 얼굴 부위를 가르키면서 가사에 넣어 노래 부른다(3회) / 발로 피아노 치면서 스스로 ‘비행기’ 노래를 부른다 (중략) 피아노 건반이 움직이자 ‘어떻게’ 하고 아쉽어 한다 (4회) / 선생님이 한 번 더 하자고 하자 ‘100번해요’ 라고 큰 소리로 얘기한다(5회)

기악수업에서는 리듬스틱, 핸드벨, 실로폰, 마라카스, 웨이커 등 여러 가지 리듬악기를 사용하였고 아동들은 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소리를 흉내내는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였다. 핸드벨과 실로폰 연주하는 활동에서는 앞에서 배운 ‘비행기’와 ‘작은 별’에 맞춰 연주했고 쉽게 연주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 악보를 사용하였다. 이 때 아동들이 악기연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숫자노

래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핸드벨을 선택 할 때도 리듬스틱연주 할 때 와 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색을 말하였고, ‘작은 별’ 멜로디에 아동A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알파벳을 넣어 불렀고 아동B와 아동C는 가나다를 넣어 부르면서 자유롭게 연주 하는 모습을 보였다.

(6회)

선생님 : 나눠줄 거예요 한명 씩 나와서 골라볼까?

아동들 :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말한다 녹색, 파란색이요

(12회)

선생님 : 기타반주로 작은별을 연주한다

아동A : 도도솔솔라라솔대신 ♪ ABCDEFG를 넣어 불렀다

아동B,C : ♪ 가나다라마바사를 넣어 노래 불렀다

‘퐁당퐁당’에 맞춰 모양 셰이커 전달하는 활동에서는 배경음악에 맞춰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도 하였고 신이 나서 기존에 배웠던 음악 중 ‘가을스케치’의 멜로디를 입으로 부르면서 틀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리듬 합주하는 활동에서 아동B는 코끼리코 악기를 가지고 코끼리 소리를 ‘음~~음~~’ 내기도 하고 아동A가 ‘롤러코스터’ 라고 말하자 아동C가 ‘코끼리 기차’ 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또한 라데츠키 행진곡과 람보 배경음악에 맞춰 들리는 소리를 따라 하기도 했다.

(15회)

선생님 : 이 악기는 코끼리코야 (소리내준다)

아동B : 음~~~코끼리 소리를 낸다

아동A : ‘롤러코스터’ 라고 표현한다

아동C : 코끼리 기차

(종락)

선생님 : 어떤 노래에 연주해 볼까?

아동들 : 가을스케치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가을스케치요’ 라고 말한다

나. 신체적 표현

아동은 기악과 가창중심의 수업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욕구를 표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신체적 표현에는 악기 연주를 통한 표현 이외에도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도 포함된다. 수업 시작 전 인사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도 해보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동작을 표현하면서 재미있게 인사를 하였다. 처음에는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였다. 몇 차시가 지나고 나서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을 때 손을 들기도 하고 <사진 1>과<사진 2>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인사하거나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동작을 말하면서 표현해 보기도 했다.

아동A

자신의 이름이 안 불려지자 손을 든다(1회) / 선생님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한다 (3회) / 한 사람씩 이름 넣어서 노래 부를 때 본인 차례가 오자 일어나서 점프를 한다(6회) / 기타 오른손 스트로크를 치면서 인사한다(7회,12회) / 인사 노래가 시작 되고 먼저 손을 내민다 (15회)

아동B

노래의 ♪ 두손을 들고서 지시에 맞춰 손을 번쩍 든다(2회) / 옆 친구와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한다 (4회) / 기타 오른손 스트로크를 치면서 인사한다(7회) / 노래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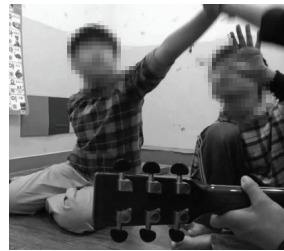
를 선생님과 함께 부른다 (13회)

아동C

노래의 ♪ 두손을 들고서 지시에 맞춰 손을 번쩍 든다(2회) / 용감한 영재들 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든다(3회) / 옆 친구와 약속하면서 인사한다(6회) / 노래에 맞춰 동
작을 한다 (10회)



<사진 1> 두 손을 들고 인사노래 하는 모습



<사진 2>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

다음은 가창활동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먼저 신체를 활용한 가창활동에서 노래 가사에 나와 있는 동작을 하면서 노래 부르거나 피아노 건반모양을 이용하여 노래를 불렀다. 먼저 ‘술술술술 머리랍니다’를 부르면서 <사진 3>과 같이 아동B와 아동C는 자연스럽게 동작을 취했고 아동A는 가까이 앉아 노래를 불러주면 천천히 가사에 맞춰 신체에 손을 올려놓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빠르기를 다르게 하여 부를 때 서로 하고 싶은 빠르기를 말하면서 아동C가 아동B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하자고 얘기한다(<사진 4>참조). 피아노 건반을 사용한 활동에서는 건반과 익숙해지기 위해 먼저 전 시간에 배운 ‘도도도도 무릎입니다’에 숫자를 넣어 ‘도도도도 1번입니다’, ‘레레레레 2번입니다’를 불렀다. 그 후에 아동들은 숫자와 계이름을 연관시켰고 ‘비행기’와 ‘작은별’ 노래에 맞춰 발로 피아노 건반을 편하게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C는 두 발로 점프하면서 치는가 하면 아동B는 양발을 섞어 가며 치기도 하였고 혼자 하는

것이 서툰 아동A는 손을 잡아 도움을 주어 건반 치는 것을 도왔다. 건반을 치면서 세 명의 아동은 자연스럽게 모든 신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행기’ 가사악보에 별, 하트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동작을 지정해서 노래 부르면서 스티커가 붙여있는 박자에 박수를 치거나 발을 구르는 활동이다. 아동 B와 아동C는 정확하게 박자에 맞춰 박수치고 발 구르기를 하였고 스티커를 첨가할 때 ‘어깨를 들쭉들쭉’이며 동작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동작이 많아져 박자에 맞추기 힘든데도 아동들은 웃으면서 동작을 크고 세게 반응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아동A는 악보를 보면서 동작하는 것이 어려워 노래 박자에 맞춰 선생님과 손뼉을 치게 하고 스스로 발 구르게 하여 활동에 참여 할 수 있게 도왔다.

아동A

선생님과 가까이 앉아서 ♪ 도도도도 무릎입니다를 불러주면 무릎, 배꼽에 손을 놓았다 (3회) / 숫자로 작은별을 부르면서 선생님과 함께 한발 한발 피아노 건반을 발로 눌렀다(4회) / 가사 악보에 스티커를 붙였다(중략) 선생님과 손뼉을 치면서 발 구르며 노래를 불렀다(5회)

아동B

친구들과 다함께 ♪ 술술술술 머리입니다 노래에 동작을 맞췄다(중략) 노래를 빠르게 하고 싶어 아동C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정하는 모습을 보였다(3회) / 피아노 건반을 양발을 고대로 뛰면서 눌렀다(4회) / 노래 중간 혼자 일어나서 발 구르기 동작을 신나게 했다(5회)

아동C

의자를 앞 뒤로 흔들면서 즐겁게 노래에 맞춰 동작을 했다(중략) 아동B와 가위 바위 보로 노래를 어떻게 부를 건지 정했다(3회) / 피아노 건반 위에서 두 발로 점프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4회) / 선생님의 빨간색 스티커는 어떻게 움직일까 물어봤

을 때 어깨를 들썩이면서 동 작을 제시했다(5회)



<사진 3> 노래가사에 맞춰 머리에 손을
없는 모습



<사진 4> 가위 바위 보로 노래 빠르기
정하는 모습

다음은 기타 반주와 배경음악을 활용한 가창수업에서 보여준 아동들의 신체 표현이다. 우선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때 아동들은 기타주변에 모여 면서 서로 기타 치는 것을 위해 선생님의 왼손 코드에 아동들은 스트로크를 치 기도 하였다(<사진 5><사진 6>참조). ‘여행을 갈까요’에 아동들의 생각을 넣어 노래를 불렀는데 ‘동물원엔 뭐가 있을까’에 맞춰 아동C는 기린을 외치면서 머리와 몸을 좌우로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돌과 물’노래에서는 후렴구인 ‘라라라라라라’에서 아동C는 바닥을 치거나 벽을 치면서 즐거움을 표현 하였고 아동B는 조명 스위치를 조정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가을 길’, ‘가을 스케치’, ‘노을’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배경음악을 사용하고 가을 느낌을 살리기 위해 나뭇잎모양을 색칠하면서 노래 부르기도 했다. 초반 아동A는 활동 중간 중간 혼자 웃기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는 반복하는 행동을 보였다. 아동C는 자신이 말한 단어를 노래에 넣어 불렀을 때 좋아하면서 선생님 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행동을 보였다. 개개인의 활동이 끝날 때 마다 하이파이브로 강화를 주었고 아동들은 즐거워하면서 다음 활동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을 스케치’ 노래 부르면서 한 아동은 가사에 나오는 허수아비를 몸으

로 따라 하기도 하고 다함께 나뭇잎을 색칠한 뒤 노랫말에 맞춰 큰 나무가 그려진 종이에 자유롭게 붙이기도 했다. 아프리카 노래 부를 때 아동B는 악보를 빨리 익혀 <사진 7>과 같이 다른 아동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악보를 짚어주어 노래 부르는 것을 도와주었다.

아동A

선생님이 ♪ 동물원엔 뭐가 있을까에 맞춰 오른손 기타 스트로크를 친다(7회) / “가을 길” 노래 부를 때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이 보였다 (9회) / ‘가을 스케치’ 의 ♪ 애들아 애들아 가 나오는 가사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11회)

아동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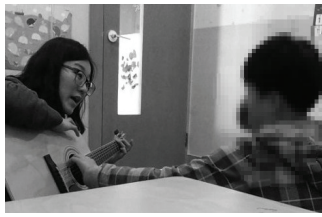
‘돌과 물’ 의 후렴구 ♪ 라라라라라 부르면서 방안에 조명 스위치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8회)/ ‘가을 길’ 을 빠르게 부르면 큰 목소리로 동작을 크게 하고 느리게 부르면 동작은 점점 느리게 행동 하는 모습이 보였다(9회)/ ‘잠보’ 에 맞춰 악보를 짚어주었다(10회)/ ‘가을스케치’ 여수아비 가사에 맞춰 여수아비 흉내를 낸다(11회)

아동C

♪ 동물원엔 뭐가 있을까에 맞춰 기린을 말하면서 팔을 흔든다(7회) / 아동B와 함께 바닥과 벽을 손으로 치면서 즐거움을 표현했다(8회) / ‘가을 길’ 에 맞춰 아동B와 빠르기를 다르게 했을 때 같은 동작을 한다(9회)



<사진 5>아동A의 기타 치는 모습



<사진 6>아동B의 기타 치는 모습



<사진 7>악보 짚어주는 모습

다음은 기악 연주하는 활동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핸드벨이나 실로폰의 경우 ‘비행기’, ‘작은 별’을 연주했는데 쉬운 멜로디이지만 계이름으로 연주하는 것이 힘들어서 숫자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른 뒤 연주 하였고 잘 따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동C는 ‘작은 별’ 반주를 시작 할 때 신이 나서 온 몸에 힘을 주고 악기를 흔들었고 활동이 끝날 쯤에는 <사진 8>에서처럼 악기를 귀에 가까이 대고 두 손으로 핸드벨 소리를 느끼기도 했다. 실로폰 연주에서는 아동이 실로폰을 가지고 자유롭게 치면 기타 반주로 맞춰 주었는데 이때 한 음 한 음 치거나 실로폰을 글리산도 하듯이 소리 내는 아동도 있었다. 작은 별 연주할 때 음정을 기억하는 아동들은 숫자를 보지 않고도 더듬더듬 음을 소리 내면서 연주하기도 했고 노래가 끝나면 실로폰 채를 좌우로 흔들면서 연주를 마치기도 하였다.

모양 셰이커 전달하는 활동에서는 박자를 익히기 위해 손 박자를 연습한 뒤 악기를 나눠 주었다. 배경음악을 틀어줬을 때 ‘퐁당퐁당’ 박자에 맞춰 무릎을 자연스럽게 치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전달 하는게 어려워 던지기도 하였다. 아동이 좋아하는 배경음악을 틀어 줬을 때 모양 셰이커를 흔들거나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했다. 리듬합주에서 아동은 자신이 하고 싶은 악기를 고르고 자유롭게 연주했는데 코끼리코 악기를 고른 아동은 코에 악기를 대고 연주하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였고 과일 셰이커를 가지고 저글링 하듯

이 던지기도 하였다. 아동A는 악기를 기차모양으로 만들면서 악기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아동B는 일어나서 엉덩이를 흔들고 발을 자신이 흔들 수 있는 제일 빠른 속도로 구르는 행동도 보였다. 리듬합주에서 아동들은 일정한 박을 이용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연주 하도록 했을 때 더 즐거운 분위기로 연주 하였다.

아동A

핸드벨을 양손을 사용해서 연주하였다(6회) / 꼬끼리코 악기를 바닥에 놓고 기차 모양을 만든다(15회)

아동B

‘잠보’ 노래에 맞춰 모양 셰이커를 자유롭게 흔들고 일어나서 춤도 추는 모습을 보였다(14회) / 실로폰 채를 실로폰 위에 놓고 양쪽으로 흔들어서 소리 내었다(12회)

아동C

핸드벨을 귀에 가까이 대고 소리를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6회) / 실로폰을 천천히 노래를 불러가며 연주 한다(12회)



<사진 8>핸드벨 소리 느끼는 모습

2. 사회성

본 연구에서는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수업을 통해 정인지체 아동의 상호작용, 질서와 규칙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 상호작용

아동은 음악활동을 하면서 선생님과 또는 아동들 간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과 상호작용에서는 눈빛을 교환하거나 활동 중 의견을 교환하고 지시에 맞춰 행동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었고 아동들 간의 상호작용은 음악활동 중에 주고받는 대화나 행동으로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활동 시작 할 때 부른 인사노래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첫 시간에는 처음 듣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반주 하는 모습만 쳐다보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집중이 되지 않았다. 두 아동은 활동이 시작되면 짧지만 눈 마주침이 가능했고 한 명은 지속적으로 이름을 불러 주어야지만 눈 마주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A는 노래에 맞춰 선생님을 보면서 대답 하고 아동B는 옆 친구와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초기에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동작만 따라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고 인사도 먼저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B는 선생님이 첫 소절을 불렀을 때 그 다음 소절을 이어 부르기도 했다. 아동들 중 특히 아동A는 신체를 많이 사용하여 불렀을 때 눈빛 교환이나 수업 참여도가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A

이름을 넣어 노래 부르면 다음 가사를 부르기도 전에 두 손을 들어 대답했다(5회)

아동B

선생님의 지시에 옆 친구와 악수하거나 하이파이브 하는 행동을 잘 따라한다(6회)

/ 기타 치는 모습을 모방하면서 선생님과 인사를 한다(11회)

아동C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대답도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10회)

가창 활동에서는 다같이 노래 부르거나 교사가 제시하는 부분에서 자기 생각 표현할 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교사와 1대1의 관계 뿐 아니라 아동들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노래에 주고받는 부분에서 아동B가 먼저 ‘해양경찰이 되고 싶어요’라고 자신의 꿈을 넣어 부르자 아동C가 이어서 ‘그래 너는 어서 커서 해양경찰 꼭 되어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러운 음악적 소통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옆 친구의 꿈을 서로 서로 얘기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3회)

선생님 : 다양한 신체 부위를 지목 한다

아동들 :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다함께 노래 부른다

(종료)

아동B : ♪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해양경찰 되고 싶어요

아동C : ♪ 그래 너는 어서 커서 해양경찰 꼭 되어라

아동들: 서로의 꿈을 얘기 해 준다

노래 속 제시하는 부분에 자기 생각 넣어 부르는 가창활동에서는 한 명씩 질문하면서 대답하도록 유도하였고 각자 대답한 단어로 다함께 노래 부르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 하였다. 한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아동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단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노래로 연결시킬 수 있었다. 아동A는 모두에게 질문 했을 때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수업 후반부에 가서는 여행에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을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7회)

선생님 : 한 명씩 가고 싶은 곳, 타고 갈 것, 가지고 갈 것을 물어 본다

아동B,C : 자신의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 한다

아동A : 다른 아동이 한 얘기를 듣고 따라한다

다같이 : 서로 얘기한 단어를 하나씩 넣어 함께 노래 부른다

기타반주와 다양한 배경음악을 사용한 가창활동에서는 선생님이 불러주는 멜로디를 따라 부르거나 가사가 적힌 악보를 보면서 배경음악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제재곡 ‘돌과 물’에서 아동B가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아동C가 자연스럽게 리듬을 치면서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곡은 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가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선생님이 ‘바윗돌 깨뜨려’ 그 다음 뭐죠? 하고 노래를 부르면 아동이 ‘돌덩이’ 하면서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A는 그룹 활동에 어려움을 보여 수업 중 1대1로 도와주면서 노래 부르게 하였고 후렴구의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한 멜로디로 아동 모두가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도왔다. 아동B와 아동C는 함께 노래 부르면서 더 큰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큰 가사악보의 사용은 아동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강약 조절은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

다. ‘가을 길은 고운 길’에 자신이 생각하는 길을 말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하면서 노래에 적용시켜 다함께 불렀고 다양한 생각을 말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A가 집중 하지 못하자 아동B는 팔을 잡아 수업에 참여 하도록 도왔다. 아동B가 자신의 언어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면 그 단어에 맞춰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 주었고 아동C는 자신의 감정을 수업에 방해 될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르거나 몸을 흔들어서 표현하였는데 노래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노래 부르면서 박수나 무릎치기 같은 행동을 제시하여도 잘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재곡 ‘잠보’의 경우 생소한 언어이지만 재밌는 리듬에 화려한 반주 음악을 사용하여 아동모두 함께 리듬을 타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아프리카라는 단어를 제시했을 때 서로 알고 있는 나라이름을 대면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아프리카 가사로 읽어주면 한국어 가사를 읽기도 하고 선생님이 가사를 짚어주면 눈으로 읽으면서 노래를 불렀고 가사를 다 익힌 아동이 나와서 가사 하나하나 짚어가며 지휘하기도 하였다. 배경음악을 틀어 줬을 때 한 명이 일어나서 춤을 추자 다른 아동들도 일어나서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제재곡 ‘가을 스케치’와 ‘노을’을 부르는 활동에서도 선생님이 천천히 불러주는 멜로디를 듣고 따라 부른 뒤 다함께 불러봄으로써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맞춰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8회)

선생님 : ♪ 바닷돌 깨뜨려 노래를 부른다

아동B : ♪ 바닷돌 하면서 다음 가사를 노래 부른다

아동C : ♪ 돌덩이

다같이 : 더 큰 목소리로 노래 부른다

(9회)

선생님 : ♪ 가을 길은 고운 길

아동B,C : 서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한 명이 말하면 자극 받아 또 생각해서 대답한다

다같이 : 한 사람씩 말한 단어를 넣어 다같이 함께 부른다

(10회)

선생님 : 아프리카 가사와 한국말이 적힌 악보를 보여 주면서 천천히 읽고 멜로디를 들려 준다

아동들 : 악보에 집중하여 선생님이 들려주는 단어 하나하나 따라 한다

선생님 : 아프리카 말로 가사를 읽어 준다

아동B,C : 한국말로 읽기도 하고 아프리카 말로도 읽는다

아동B : 앞에 나와 가사를 짚어가며 지휘한다

(종료)

선생님 : 배경음악을 틀어 주고 함께 노래 부른다

아동들 : 한 명이 일어나자 다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다

아동C : 아동B가 혼자 노래 부르고 있자 이름 부르며 우리 작게 하자라고 말한다

다음은 기악활동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지휘에 맞춰 함께 연주하는 활동을 통한 협동적인 모습과 즉흥연주를 통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 실로폰 합주에서는 동시에 연주하는 활동이 원활히 되지 않아 아동의 속도에 맞춰 기타반주를 맞춰 주었다. 조금은 느리지만 연주 모습을 보여주고 반복 연주를 하면서 점점 박자에 맞춰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핸드벨 연주는 각자 숫자를 지정해 주고 그 숫자에 맞는 타이밍에 연주하는 활동이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지시와 악보 지시에만 맞춰 연주 하였고 활동이

잘 이루어 질 때 피아노 반주를 넣어 연주 하게 하였다. 처음 맞지 않았던 박자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맞춰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들은 한 곡을 마친 뒤에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박자에 맞춰 웨이커 전달하는 활동에서는 일단 손으로 먼저 연습을 한 뒤에 내 손 옆 손을 반복하면서 익숙해 질 때 모양 웨이커 하나를 전달하도록 했다. 전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던지기도 했지만 음악이 나오고 선생님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느리지만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A가 전달하는 것이 잘 안되자 아동B는 ‘옆 사람’ 하면서 도와주기도 하였고 활동을 잘 한 뒤 <사진 9>처럼 웨이커를 2개, 3개로 늘려 활동했을 때에도 박자에 맞춰 잘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래는 ‘퐁당퐁당’을 시작으로 여러 번 반복 한 뒤 그동안 배웠던 노래를 사용해서 지루 하지 않게 진행 하였다. 나중에는 교사의 지시 없이도 음악적인 지시로도 모양 웨이커를 전달하는 모습과 리듬합주에서 <사진 10>과 같이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연주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로의 악기를 바꾸기도 하는 행동을 보였다. 선생님의 리듬을 모방하기도 하고 음악에서 들리는 멜로디를 리듬악기로 표현하면서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음악적인 틀 안에서 자유롭게 합주함으로써 아동은 자신을 표현하고 선생님과 함께 연주한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b회)

선생님 : 노래 부르면서 손으로 지시에 준다

아동들 :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시에 맞춰 소리를 내었다

아동들 : 악보를 보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핸드벨을 흔든다

(종료)

아동들 :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자신의 핸드벨을 힘차게 흔든다

(12회)

선생님 : 아동이 연주하는 속도에 맞춰 기타 반주를 한다

아동A,B : 각자 다른 속도로 자신의 연주를 한다

선생님 : 속도를 못 맞추는 아동은 옆에서 함께 연주 한다

(14회)

선생님 : 손으로 내 손 옆 손을 함께 한다

다같이 : 천천히 선생님을 따라한다

선생님 : 에그 셰이크 하나를 전달하도록 한다

아동B : 아동A가 늦게 전달하자 “옆 사람” 하면서 선생님에게 전달하도록 애기 해 주었다

(15회)

선생님 : 악기를 탐색하게 한다

아동들 : 자신이 고른 악기를 자유롭게 소리 내기도 하고 선생님의 리듬을 모방하기도 한다. 선생님의 지휘 없이 음악에 맞춰서 다함께 연주 한다. 악기를 서로 바꾼다



<사진 9>모양 셰이커 전달하는 모습



<사진 10>리듬합주 하는 모습

나. 질서, 규칙

인사노래를 시작으로 아동들은 자기자리에 앉아 수업을 시작했다. 착석은 처음부터 잘 이루어 졌는데 집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한 명 씩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고 매 시간 마다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규칙이 되었다.

인사노래 부를 때

선생님 : ♪OO야 안녕, OO는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서

아동들 :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선생님과 눈 마주치고 자리에 앉는다

다음은 가창활동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아동들은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가사 악보를 보면서 제시하는 부분에 자기 생각 넣어 부르는 활동을 통해 순서를 기다리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노래를 시작하고 끝낼 때 잘 나타났는데 처음에 선생님의 언어적인 지시에 노래를 시작하였고 점점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나 기타 반주에 맞춰 전주가 끝나고 노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특별히 ‘시작’하고 지시 하지 않아도 아동이 음악의 흐름으로 노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도도도 무릎입니다’를 부르면서 아동C는 선생님의 노래에 맞춰 노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 를 순서대로 지목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 명씩 노래 부를 때 산만 했지만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행기’를 숫자노래로 부르면서 바로 피아노 치는 활동에서 아동은 큰 관심을 보였다. 활동 중에 아동 A가 나가려고 하자 아동B는 이름을 부르면서 ‘앉아’ 라고 말하면서 앉게 하여 수업시간을 지키게 했다. 아동C는 앞에 아동이 끝나자 일어나서 자신의 차례임을 알렸다. 아동들이 서로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회)

선생님 : ‘도도도도 무릎입니다’, ‘레레레레 배꼽입니다’

아동들: 노래에 맞춰 동작을 취한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4회)

선생님 : 바다에 큰 피아노 건반을 붙이고 한명씩 발로 연주 한다

아동C : 아동B가 하기를 기다리면서 끝나자마자 일어나 자신의 차례임을 알린다

아동B : 아동A가 나가려고 하자 앉아! 하면서 아동A에게 나가지 못하게 했다

선생님 : 아동A의 손을 잡고 함께 숫자를 부르면서 건반위치를 익히고 노래 부른다

제재곡 ‘여행을 갈까요’ 를 부르면서 아동들은 자기에겐 질문이 오면 생각을 말하면서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기타반주로 아동들과의 거리도 가깝고 자유로워서 제시하는 단어를 얼마든지 넣고 부를 수 있었는데 물어 보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노래에 넣어 부르고 각자 생각한 단어를 서로 노래 불러주는 것으로 표현 되어졌다. 이때 아동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지만 정해진 형식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였다.

(7회)

선생님 : 기타반주에 ♪여행을 갈까요 노래를 부른다

아동B,C : ‘사당’, ‘서울’ 등등 생각을 넣어 한 소절 부르면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말한다.

다음은 기악활동에서 보여준 모습이다. 선생님 반주에 맞춰 연주하거나 배경음악에 박자에 맞춰 연주하는 모습에서 질서나 규칙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동들이 악기를 연주 할 때 시작하고 멈추는 것을 위해 박수2번! 박수3

번! 과 같은 구령을 연습해서 선생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악기연주할 때 중지시키기 위해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점점 선생님의 지시에 맞춰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초반 리듬스틱을 활용한 수업에서 일정한 박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 맞추는 게 잘 안 되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고 배경음악에 맞춰 노래 부르거나 악기연주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먼저 핸드벨 연주에서 각자 음정과 숫자로 된 역할을 주고 숫자 악보를 보면서 자신의 숫자에 정확하게 연주하는 활동을 아동A는 기다렸다가 자신의 번호와 일치하는 부분에서 정확히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B와 아동C도 마찬가지로 조금 느리게 시작은 했지만 점점 박자가 맞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같은 노래로 실로폰연주를 했는데 처음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연주 했을 때 다함께 연주하는 것이 힘들었다. 아동A는 혼자 빨리 연주하고 끝나치고 아동C는 너무 크게 연주 하여 합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 한 뒤에는 시작은 조금 안 맞았지만 연주 중간에 점점 맞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양 웨이커 전달하기에는 앞에서 초기에 되지 않았던 내 손 옆 손을 조금만 해 주었더니 금방 따라서 내 손 옆 손을 하였고 웨이커의 개수를 늘려 해도 박자에 맞춰 옆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악기를 받고 차례로 정리 하는 모습은 서로 먼저 악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합주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은 옆 사람의 행동을 보고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모습이 늘어났다.

아동A

핸드벨 연주에서 2번을 했는데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연주하다가 반주에 맞춰 스스로 박자를 맞춰 가는 모습이 보였다(6회)

아동B

핸드벨 3번을 가지고 연주했는데 음정이 많이 없어서 기다리긴 했지만 박자에 맞춰 잘 소리내 주었다(b회)

아동C

악기 연주하기 전 박수2번! 을 하면 악기 연주를 멈춰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반복 한 뒤에 1번에서 2번 정도하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12회)

V. 결 론

본 연구는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활동을 통해 정인지체 아동의 언어, 신체 표현 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K유치원 방과 후 활동에 다니고 있는 정인지체 아동 3명을 대상으로 9주간 매회 30분~40분씩 15회기의 음악활동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활동은 정인지체 아동의 언어, 신체 표현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스로 질문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모습과 신체의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었다. 먼저 매 시간 이루어진 인사노래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 부르고 다양한 인사방법을 통해 노래를 부름으로써 표현발달의 모습이 보였다. 기악활동에서는 악기연주 할 때 ‘제가 해 볼게요’, ‘이건 뭐예요’와 같은 관심 표현과 ‘코끼리’, ‘틀러코스터’와 같이 악기의 모양을 묘사하는 표현도 볼 수 있었다. 악기를 온몸으로 흔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가창활동에서는 되고 싶은 꿈이나 여행 가고 싶은 곳을 물어봤을 때 ‘사당’, ‘서울’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배경음악만 틀어주어도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악기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의 지시가 없어도 노래 가사에 맞춰 신체부위를 가리키거나 가사에 나온 단어를 따라 하는 모습의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활동은 정인지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함께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모습, 서로 도와주고 기다리

는 모습 등의 변화로 볼 수 있었다.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목소리만 집중해서 부르거나 자신이 하고 싶을 때 노래 부르는 모습에서 피아노 외에 다양한 반주를 사용하여 다함께 노래를 시작하고 끝맺는 모습이 보였다.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부를 때 자기가 말한 것만 하자고 하는 모습에서 서로 대답한 단어를 듣고 좋아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다. 기악활동에서도 자유롭게 시작하는 모습에서 반주에 맞춰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점점 잘 맞았고 서로의 연주를 듣는 모습도 보여 졌다. 핸드벨 연주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숫자 악보를 보면서 연주함으로써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수업이 많이 진행된 뒤 셰이커 전달하는 활동을 했을 때 아동모두 내 손에 있는 악기를 옆 친구에게 주는 것이 잘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기악과 가창중심의 음악활동은 정인지체 아동의 언어, 신체표현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활동을 통해 정인지체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정인지체 아동에게 보다 많은 음악활동을 제공해 주는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미(2004),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래활동 사례분석, **한국음악치료교육학술지:음악치료교육연구**, 제1집 1호, 33~46쪽.
- 갈향임(2007), 초등학교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음악수업 방안,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편(2010), **특수아동교육의 이해**, 경기도 파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김영옥·김원경·박화문·석동일·윤점룡·정재권·정정진·조인수(2005), **특수교육학**,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 김요한(2011), 리듬악기활동이 정신지체 아동의 수업참여행동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옥·김진희·박희찬·정대영·김숙경·안성우·오세철·이해균·최성규·최중옥(2005), **특수아동교육의 실제**,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 김종인(2008), **아동음악치료방법론**,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김종인(2005), **음악치료 악기론**, 서울: (주)지식산업사.
- 김진호·박재국·방명애·안성우·유은정·윤치연·이효신(2009), **최신 특수교육**, 서울: (주) 시그마프레스.
- 김하영(2011), 음악 감상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정서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규·김찬수·김현자·민경훈·손상희·송민경·이종열·정동영(2011), **특수교육 음악교육론**,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 김희성(2011), 정신지체 중학생의 음악수업관찰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문경은(2008), 소집단 음악치료 과정에서 관찰된 정인지체학생의 자기표현,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지영(2000), “음악적 자극이 자폐성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반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제2집 1호, 1~17쪽.

박원희·김기창·김영일·김영욱·이은주·신현기·한경근·이숙정·김애화·윤미선·김은경·송병호·이병인·김송석·양경희(2010), **함께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특수교육학**,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성태제(2010),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손수근(2009), 인지 발달론에 근거한 정인지체 초등학생 음악 지각·표현 활동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명노(2005), 정인지체아를 위한 음악지도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점룡·김병식·박용석·박주완·백순이·서원욱·심재중·유종호·이원희·이한우·임응현·차용찬·최기상(2005), **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육**, 서울시 마포: 학지사.

이소연·박은혜(1998), **특수 아동 교육**, 서울: 학지사.

이순화(2010), **아동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한진.

이수연(2011), 정인지체 학생의 음악개념 형성을 위한 기악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숙·김영천(200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지신아(2012), 소그룹 음악활동이 정인지체 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혜성·장혜원·황은영·김은영(2007), **장애아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특별시 마포: 교육 과학사.

진영기·권주석(2006), “음악 표현활동이 정인지체학생의 부적응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제10집 2호, 43~58쪽.

최병철(2010), **음악치료학**, 서울: (주)학지사.

최애나·오은주(2009), “음악치료가 경도정인지체아동의 감정어휘습득 및 감정표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제5집 2호, 75~99쪽.

최은경(2006), 가창지도가 정인지체아동의 어휘이해력과 표현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혜(2009), 정인지체 특수학교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한 학습지도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지현(2010), 가창활동이 정인지체아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The Influence that Music Lessons have on the Development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s Expressivity and Sociability

Deok Young, Jang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Mentally retarded children have many difficulties in language acquisition and usage. Also, language problems of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can limit chances of active verbal communications in relationships with people around them. Musical stimulation: makes a person not to feel discouraged or neglected in events of failure; gives a person chances to exchange thoughts and ideas mutually; lets a person acquire social skills; and helps a person to maintain confidence and interest on newly accepting outside worl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in finding out the effects of music classes centered on instrumental music and singing have on the expression and sociality development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3 mentally retarded children studying in an integrated kindergarten, located in Suwon. A total of 15 music classes were conducted for a period of 9 weeks, and each class lasted for 30~40 minutes. The researcher conducted the classes herself, and the data observed together with the video taken during the classe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described.

The analysis of the results were carried out only after the 3rd class, considering the degree of intimacy with the children and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ly, music activities centered on instrumental music and singing have positive effects on language, physical expression development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From interests in musical instruments to active participation, and also various ways of portraying the shape of musical instruments could be seen from instrumental music activities. During singing activities, some of the children were able to answer the teacher's questions in between singing, and some of them were also able to express physically according to the lyrics, or sing naturally when background music was on.

Secondly, music activities centered on instrumental music and singing have positive effects on sociality development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During instrumental music activities, a range of behaviors from playing an

instrument alone to exchanging instruments with others or waiting could be observed. During singing activities, the children were able to sing when they wanted to, and were able to sing together, starting and ending at the same time. They were also able to sing with additional words spoken by the others included in the lyrics, one by one.

If we look at other earlier theses related to mentally retarded children, they are all focused on music class teaching plan research but not experimental research. Through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anticipates more variety of vigorous researches to be conducted in order to provide more music activities to mentally retarded children in the future.